

선단동 개청1주년 기념 한마당 大祝祭

제1회 동민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자리매김

포천시 선단동(동장 강병수)은 지난달 31일 대진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청 1주년을 맞아 동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개최했다.

제1회 선단동민 화합의 한마당 대축제는 동민들의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동참함은 물론 동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함께 하는 선단, 참여하는 선단"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늘 푸른 전원·교육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축제는 선단동이 주최하고 선단동체육회(회장 이천목)가 주관했으며 선단동통장협의회(회장 장경섭)를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해 추진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자작동, 선단동, 설운동, 동교동 등 4개팀으로 구성해 문화 및 체육행사를 병행 동대항으로 개최했으며 경기종목은 시범경기로 축구와 게이트볼을 문화(민속)행사로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사생 및 글짓기 등 4개종목, 체육행사로는 인라인스케이트, 씨름, 축구, 피구, 800m계주 등 5개 종목, 시범경기로 400m계주를 실시했다.

또 이벤트 행사로 장기 및 노래

자랑과 경품추첨행사, 그 외에 부대행사로는 가훈 및 좌우명 써주기 및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한편 이날 대진대 운동장에서는 선단동새마을부녀협의회(회장 오은자)가 운영한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은 참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모금된 금액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김장담가주기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선단초등학교(교장 허효만) 풍물부의 사물놀이 시연과 관내 각종 체육관의 합기도, 태권도, 공수도 등의 시범행사가 진행되어 큰 관심과 격려를 받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선단동은 동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며 대진대학교와 중문의과대학교, 선단초등학교 등 지역학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경기종목별 대회결과

는 다음과 같다.
줄다리기 ▶ 우승 동교동 ▶ 준우승 선단동 ▶ 공동3위 설운동 자작동
단체 줄넘기 ▶ 우승 선단동 ▶ 준우승 동교동 ▶ 공동3위 설운동 자작동
사생 및 글짓기 ▶ 우승 선단동 ▶ 준우승 동교동 ▶ 공동3위 설운동 자작동



포천시 선단동이 개청1주년을 맞아 한마당 대축제를 마련해 함께하는 선단, 참여하는 선단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단동 ▶ 우승 선단동 ▶ 준우승 동교동 ▶ 공동3위 설운동 자작동
축구 ▶ 우승 선단동 ▶ 준우승 자작동 ▶ 공동3위 설운동 동교동
농구 ▶ 우승 선단동 ▶ 준우승 동교동 ▶ 공동3위 설운동 자작동
태권도 ▶ 우승 선단동 ▶ 준우승 동교동 ▶ 공동3위 설운동 자작동
씨름 ▶ 우승 선단동 ▶ 준우승 동교동 ▶ 공동3위 설운동 자작동
사물놀이 ▶ 우승 선단동 ▶ 준우승 동교동 ▶ 공동3위 설운동 자작동
줄다리기 ▶ 우승 선단동 ▶ 준우승 동교동 ▶ 공동3위 설운동 자작동
단체 줄넘기 ▶ 우승 선단동 ▶ 준우승 동교동 ▶ 공동3위 설운동 자작동

동 ▶ 공동3위 설운동 동교동 ▶ 피구 ▶ 우승 선단동 ▶ 준우승 동교동 ▶ 공동3위 자작동 설운동 ▶ 인라인스케이트 ▶ 1위 장명철 ▶ 2위 이창행 ▶ 3위 윤현진 ▶ 400m계주 ▶ 우승 동교동 ▶ 준우승 선단동 ▶ 공동3위 설운동 자작동
지역해 기자 94spice@hanmail.net



중국하이베isi 방문단이 지난 7일 포천을 방문, 양국 문화 및 스포츠 등의 교류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국 하이베isi 방한단, 포천시 방문

공무원 파견, 예술단 합동공연 등 추진기로 합의

경기도 포천시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하이베isi(淮北市)의 황광인민대표위원회의 부주임과 장동표 시 인민정부 부시장, 예술단원 등 11명이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포천시를 방문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8일, 이들 방문단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양 도시 우호증진을 위한 활발한 교류추진 방안을 밝혔다. 박 시장은 포천시립민속예술단과 하이베isi를 비롯한 포천시 자매·우호도시

의 공연단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정기공연을 제안했으며 11월 ~ 12월 중에는 스포츠를 통한 민간교류의 일환으로 포천시 생활체육회 축구단이 하이베isi를 방문, 친선 경기를 벌인다고 밝혔다.

또 내실 있는 교류추진을 위해 현재 중국에 유학중인 포천시 직원을 하이베isi에 파견하고 중국에서도 1명을 포천시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용역업체 모집

조사설계용역 11억8천184만원, 포천시청 홈페이지 참조

포천시는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11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사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수행능력평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용역내용은 ▶현황측량 ▶토질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도시관리계획 (2중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다. 입찰예정 시기는 2004년 12월이다.

포천석 아트밸리는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산 38, 39번지 일원에 9만9천㎡ 면적의 조각공원과 폭 14m, 길이 1.5km의 진입도로로 조성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참가자격과 조건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록 구비서류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www.pcs21.net) 입찰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조사설계용역 예산은 11억8천184만원이지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특화경영팀(☎031-530-8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갑기자 jk61@paran.com

보건소, 무료 치아 홈메우기 사업

포천시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한다.

시 보건소는 치아표면에 있는 홈은 칫솔질로도 잘 닦이지 않아

충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홈을 충치가 생기기 전에 치과용 재료로 메워주면 약 90%의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 사업에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보건소 구강보건실(☎031-530-8549)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해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 동네를 말한다 ⑩ - 신북면 갈월1리 이장 유석근

“жат 농사 항공살포 막는 철탑 설치 反對”

포천의 신북면과 허브아일랜드로 향하다 Q자형 길목에 위치한 신북면 갈월1리. 뒤로는 덕대산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어 아늑한 느낌의 마을이다.

갈월1리는 옛지명인 칠월리와 가마골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칠월리는 칠년물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가마골은 숯가마를 생산하던 곳이라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조상들이 일구어온 땅에서 대대손손 살고 있다는 갈월1리 유석근(42)이장을 만났다.

유 이장은 “우리 마을은 45가구 300여명이 거주하는 비교적 작은 마을”이라며 “마을주민들의 80%정도가 벼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고 한다.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지 마을 주민들이 순수하다”며 넉넉한 인심을 자랑한다.

이 마을은 1968년 정부조립사업계획에 의해 잣나무가 많이 심어진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특용작물로 잣을 재배하기도 한다. 물론 잣, 인삼, 버섯, 약초(황기) 등이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유 이장은 “특용작물 재배로 농가수익이 기대되고 있으나 적절한 가격 책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이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변전소 문제로 주민들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이 문제를 9월 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설명회를 통해 알았다”며 “이날 설명회에서는 설명회에 관한 언급만 있었을 뿐 변전소 얘기는 없었다”고 말한다.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주민설명회 이후다.

주민들의 불만은 “변전소가 들어온다면 관광권으로 개발하려던 기존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이다”며 “철탑으로 인해 생기는 전선들이 하늘을 뒤덮어 수목지역의 화재발생과 숲외파리 등의 병충해 발생시 항공살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유 이장과 마을 주민들은 인근 마을과 변전소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장은 갈월1리를 관광산업을 통해 발전시키고 싶어한다.

“우리 마을은 청산 8개리 중 하나로 신북면이나 허브아일랜드를 가기 위한 길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특산물 판매장이나 특화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다면 농업뿐 아니라 생산시설을 확충해 농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마을엔 초기 정착민들이 심은 300년 된 느티나무 5그루가 있다. “이 나무들은 원형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보존가치가 있다”며 “어름이면 마을 주민들



특성화 마을 추진으로 질서는 동네를 만들고 싶어하는 유석근이장

의 휴식공간 뚝뚝히 해 내는 만큼 아직 미비한 주변 환경을 개선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갈월1리 주민들은 평소 개발 위원, 노인회, 부녀회, 산림계원 등이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지내고 있다. 특히 겨울의 철사대회와 여름의 북놀이 등을 통해 주민 간 우의를 다지고 있다.

유 이장은 “우리마을이 산천 마을이나 특성화 마을로 지정된다면 주민들의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며 마을 발전의 희망을 주민과 함께 키워가고 있다.

지역해 기자 94spice@hanmail.net

“2005 포천 국제 태권도대회” 유치제안 포천시 면밀히 검토예정



포천시가 세계 태권도인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한마당 2005 포천국제태권도대회 유치제안을 받았다.

포천시가 “2005 KOREA OPEN 포천국제태권도대회” 유치를 제안 받았다.

2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주)영성이벤

트는 ▶포천을 세계의 태권도 중심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 ▶포천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대회를 관광과 연계시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세계 태권도인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회는 “세계 태권도인의 우정과 화합을 관광도시 포천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2005년 7월 5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포천 대진대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경기가 펼쳐지는 것으로 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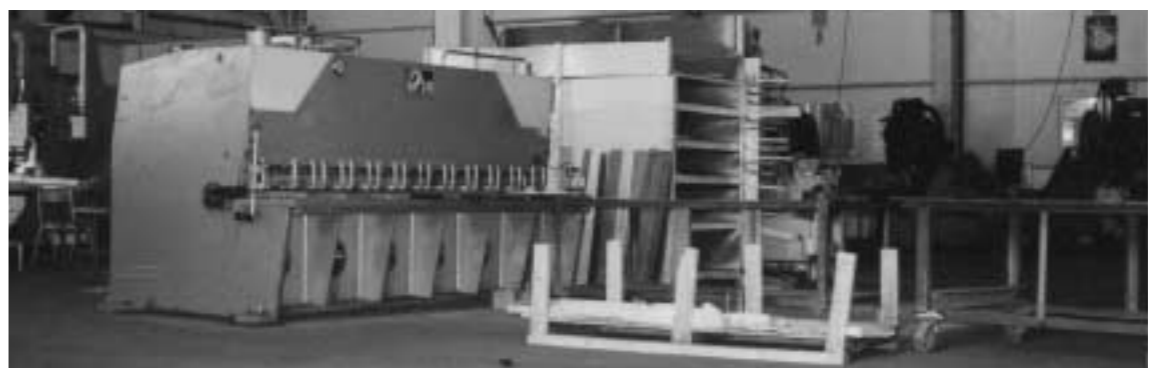
대회 규모는 세계 50개국 2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태권도경기 외에 전야제와 개막식, 리셉션, 폐막식 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돼있다.

또 각종 부대행사가 마련되고 35개 동의 부스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한편 포천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2005년도 국제 태권도대회 유치’를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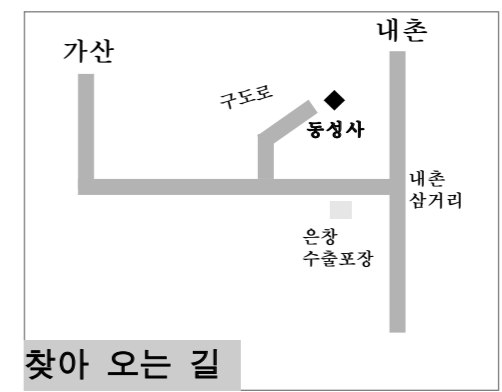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가구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생산 전문 동성사



생 · 산 · 품 · 목

- ◇ 오디오 장식장
- ◇ 인테리어 소품
- ◇ 가구 장식품 부품
- ◇ 불박이장 부품
-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1/ Tel: 031)532-2123, Fax: 031)532-2122/ 대표 : 윤 이 용